

2025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심의결과

- 전통 -

□ 심의일정

[1차] 행정심의 지원신청 부적격자 등 행정심의 결정사유 검토 ~ 2024.11.08.	▶	심의위원 사전 워크숍 심의방식 및 의무사항 등 안내 2024.11.20.	▶	[2차] 전문가 서류 및 토론심의 심의지표에 따른 심의위원 서류검토 및 토론심의 진행 후 개별차점 2024.11.21. ~ 12.16.	▶	[3차] 전문가 지원금 의결심의 사업 규모에 따른 예산검토 및 지원금 의결 2024.12.10. ~ 12.23.
--	---	--	---	---	---	--

□ 심의위원회 명단

※가나다순

장르	심의 분야	심의위원
전통	국악기악 (계승/창작), 국악성악 (계승/창작), 작곡발표	김성준(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조교수), 송영숙(선릉아트홀 대표), 송지원(음악인문연구소 소장), 유은선(국립창극단 예술감독), 이형환(중앙대학교 다빈치캠퍼스 부총장)
	연희 (계승/창작)	강신애(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후원센터 차장), 권선경(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 교양대학 조교수), 권태연(국립극장 공연기획팀 기획위원), 서한우(천안시립흥타령풍물단 예술감독), 양근수(서울특별시 무형유산위원회 전문위원)
	전통무용 (계승)	김영희(한국춤비평가협회, 전통춤이론가), 김진원(대한민국전통무용협동조합 이사장), 문희철(한양대학교 무용학과 겸임교수), 성재형(성신여자대학교 무용예술학과 교수), 이종숙(한국전통악무연구소 소장)

□ 세부 선정결과

※ 지원결정액은 창작지원금과 활동비(정액 3,000천원) 및 회계검증수수료를 포함한 결정액임.

○ A트랙

※ 가나다순 / 단위 : 원

연번	관리번호	성함(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1	202501043	가야금Library42	가야금 Library「사이」 vol.5 <가야금 법금展>	23,000,000
2	202503813	공상명월	탁상공론 : 공상 주고 조선 받는다	20,000,000
3	202505451	권서영	권서영 가야금 레퍼토리 두 번째 프로젝트 '정중면 正中面'	20,000,000
4	202504695	남창동	왈자지껄	20,000,000
5	202505576	메탈리즘	네오리추얼 영성비나리 - NeoRitual YeongSungBinari	20,000,000

연번	관리번호	성함(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6	202506428	박지선	2025년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15,000,000
7	202505211	성훈모	2025 성훈모의 기획출판 - 두 개의 이름 係 : 繼	18,000,000
8	202504656	오초롱	종묘 : 재래-악	20,000,000
9	202503602	우수	우수의 컨템포러리 연희 시리즈 1 - #실존주의	19,000,000
10	202502060	윤인혁	유춘오악회 : 봄날의 풍류 한 바탕	20,000,000
11	202504575	윤종현	명가월륜2 : 만월의 빛	17,000,000
12	202505704	이아로	동지; 한국요괴도감	19,000,000
13	202505021	작곡동인씨	정혁&최민준 듀오 작곡 렉처콘서트 '국악을 쓴다는 건...'	20,000,000
14	202502613	타악집단자우	SuperStage	19,000,000
15	202503378	홍지혜	홍지혜 < 생활의 향악화 II - 「유예지」 >	20,000,000

○ B트랙

※ 가나다순 / 단위 : 원

연번	관리번호	성함(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1	202504848	경서도소리포럼	조선최초여성중심국악공연'삼여류명창전'오마 주, 그해 경성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30,000,000
2	202502063	국악합창두레소리	한국 근대 단편소설을 모티브로 한 오늘의 민요 창작	33,000,000
3	202500582	궁예찬트리오	르네상스	23,000,000
4	202502922	김대환	화(和): 황해도 가무악歌舞樂	22,000,000
5	202506317	김미성	김미성의 소리프로젝트2 <민요>	18,000,000
6	202502070	김지후	김지후X지후트리: '손소리꾼과 소리꾼들의 만남'	25,000,000
7	202506370	방지원	<산오구 : 극락행 완행열차>	25,000,000
8	202504678	봉정민무용단	'잇다' (전통과 현재, 무용수와 관객)	23,000,000
9	202503839	사회적협동조합 연희단팔산대	예술창작활동지원_B트랙	30,000,000
10	202504729	아악일무보존회	종묘제례일무 - 64인이 펼치는 일무 전장, 팔풍의 몸짓	34,000,000

연번	관리번호	성함(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11	202506309	연희점추리	추리밴드_한탕	28,000,000
12	202502467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	우봉 이매방 서거 10주기 추모공연(나는 이매방이다.)	34,000,000
13	202502465	윤은화	양금으로풀어낸곳의세계	23,000,000
14	202501875	이재하	이재하 거문고 독주회 현금제(玄琴祭)-[목:현] (가제)	25,000,000
15	202504440	전병훈	전병훈의 경기경기(京畿驚起)프로젝트8 - 경기 사당패 소리	25,000,000
16	202505814	정민근무용단	혼연(渾然)의 삶을 그리다	25,000,000
17	202504373	조선락광대	4인의 류(流), 생성과 기록	30,000,000
18	202500735	조훈	제 3의 공간 (The Third Space)	27,000,000
19	202505463	지유정	찰나의 예술	25,000,000
20	202505561	채수현	경기잡가 춘향가	25,000,000
21	202506328	카무스(K-ArtMusicSociety)	<소멸; 사라지는 것들에 대하여>	30,000,000
22	202500586	타고	KoreanDrum III : TheDrum Shaman	26,000,000
23	202506131	한지수	공명하는 공간 : 힘의 집	25,000,000
24	202502405	헤이스트링(Hey string)	서울 놀음, 구경 가자	25,000,000
25	202501359	홍성현 아트 컴퍼니	[RE: 오리지널리티] 시즌 2. REtual Dance - 추는 음악 (가제)	30,000,000

○ C트랙

※ 가나다순 / 단위 : 원

연번	관리번호	성함(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1	202505080	4인놀이	Play with the Treasure	28,000,000
2	202502124	THE 광대	불편한	35,000,000
3	202505020	김광복	김광복65주년<예인의향기> -김광복류 피리산조 발표회	25,000,000
4	202501850	김대성	김대성 창작음악발표회 '우룩 12곡을 위하여'	26,000,000
5	202504179	김은희	운초김은희의춤 '일무지관(一舞之貫)'	34,000,000

연번	관리번호	성함(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6	202504146	박안지	박안지 장단 연구 프로젝트 I <금산농악>	32,000,000
7	202502487	불세출	일상풍류방	28,000,000
8	202501775	사)한영숙살풀이춤보존회	무지의 발견-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살풀이춤 지정 10주년 공연	22,000,000
9	202505822	서영호	대를 잇는 서영호의 작품세계 III	25,000,000
10	202502810	아시아금교류회	아시아금교류회 제27회 정기연주회	27,000,000
11	202501807	이자람	주인과 하인(가제)	35,000,000
12	202502059	이희문 컴퍼니	이희문 컴퍼니 <깊은사랑>	28,000,000
13	202505012	조용수	조용수의 다섯 번째 鼓 '일고오창' - 교수 조용수, 다섯 명창과 '제'를 마주하다	35,000,000
14	202505887	지성자	소리길을 찾아서 - 신아위(神娥慰)	31,000,000
15	202502217	최영순	진유림의 춤판 - 춤으로 쓴 인생이야기	35,000,000
16	202505978	한국전통춤협회	2025 대한민국전통춤문화제	34,000,000

□ 심의총평

□ 국악기악(계승/창작), 국악성악(계승/창작), 작곡발표

○ A트랙

A트랙에는 예술활동 경력 5년 이내의 예술인(단체)가 지원 가능한 트랙으로, 세부분야로는 국악기악과 국악성악 지원자 및 단체가 작곡발표 지원 대상보다 많이 지원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형태가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의는 프로젝트의 우수성, 프로젝트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예술계 및 관람객 대상의 기대효과, 기존 예술 활동에 대한 발전 가능성, 예술적 역량으로 5개 영역으로 심의를 진행했으며, 지원 신청한 대부분의 작품이 독창적인 작품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분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국악의 대중화에 대한 모색 방법으로 미디어 아트의 결합을 통한 공연 형태가 있는 등 예술가들의 고민이 엿보였던 트랙이었습니다.

다만, 유사한 공연 콘셉트와 내용 구성으로 지원 대상 간 독창성 및 차별성이 모호한 지점이 다수 발견됩니다. 융합적 작품 추구에 따른 영상, 전자 음향, 미디어 아트, 유사악기 사용 등으로 인해 전통성, 예술성, 차별성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어 향후 구현 과정과 내용의 차별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나치게 추상적인 계획과 기획 의도의 구현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도 있어 아쉬움을 남기는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전통음악을 재해석하여 지원 신청한 프로젝트 대다수는 독창적이며, 새로운 차원의 아이디어가 돋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며, 예술계에 진입한 예술인들의 작품들이 다양해지고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B트랙

B트랙 지원 신청 프로젝트들 대다수는 작품성 측면에서 기대가 되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일부 작품들은 독창성을 추구하는 우수한 작업들이 있어 예술적 완성도를 위한 노력과 고민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굿 음악의 재해석 작업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점은 특이점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주제의 프로젝트가 기획되었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며 공연을 통한 새로운 작품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지원 계획 간 편차가 많은 편이었으나, 참신한 프로젝트들은 예술계 내 유의미한 영향과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양의 고전이나 클래식 음악을 전통음악에 녹이려는 프로젝트들 포함하여 전통음악에 시각적인 장치, 조명, 미디어 아트, 일렉트로닉 음악 결합 등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시도를 엿볼 수 있다는 점은 지원자의 향후 발전 가능성과 예술적 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시각화에 주력하여, 프로젝트의 기획 의도가 표현되지 못한 프로젝트들은 아쉬웠습니다. 예술인(단체)으로서 음악적 완성도에 중점을 두는 프로젝트를 우선으로 두었으며, 사운드아트나 단순히 기술적인 요소에만 주력한 사업은 지양하며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술가의 예술이 시대와 역사,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기존의 활동을 중심으로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이 예술적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전통음악의 재해석 프로젝트를 포함해 완성도 높은 독창적인 예술작품을 더 많은 대중에게 보이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C트랙

C트랙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연주 형태의 다양한 변용을 시도하는 작품과 국내 대외적 이슈 중심의 창작 국악곡과 작곡 프로젝트가 균형 있게 지원하였습니다. C트랙은 특히 독창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우수한 프로젝트들이 돋보였고 작품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더불어 중진급 이상 예술가로서 전통음악 전승을 중심으로 복원이나 개작 초연의 음악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한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대부분 자신의 예술 방향성이 구체화되어 지속적인 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품 연결성이 돋보였습니다.

다만, 특정 개인이 일시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일회성의 축제성 공연을 기획하는 사업은 지양하였습니다. 각 예술가가 그동안 축적해 온 예술세계를 바탕으로 꾸준한 준비와 성과를 이어온 예술인(단체)을 주시하였습니다. 자신의 음악 세계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면서 자신만의 예술세계가 확립되고 관객과도 꾸준한 소통을 하는 예술인(단체)을 우선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단체의 경우 체계적인 조직과 구체성을 가지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계획한 단체를 주목하면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지원신청서에서는 예산 계획이 항목별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예산 편성 등 불합리한 예산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작품 구현과 수행을 위한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예산 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기획 의도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의 구체성은 확보했으나 구현성이 낮은 경우가 있어 향후 기획 의도와 프로그램 설명, 추진 과정에 대한 정합성의 일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견 이상 예술인의 예술 활동이 후대의 전통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만큼 오랜 시간 훈련된 학습과 함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며 예술인(단체)만의 창의적인 작품이 다양하게 구현되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이번 연도 C트랙의 경우, 보다 심층적인 깊이의 프로젝트들이 선정되었기에 실현성 측면에서 기대가 됩니다.

☐ 연희(계승/창작)

○ A트랙

A트랙은 전반적으로 서류 작성이 짜임새 있었으며, 참신한 주제와 폭넓은 창작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작품의 소재도 한 장르에 몰리지 않고 다양한 연희 요소들이 작품의 소재로 분포되어 있으며 예술인으로서 다양한 고민이 담긴 프로젝트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통 연희를 기반으로 다양한 재해석, 예술적 영감을 구체화한 실행 계획이 포함된 완성도 높은 기획안들이 많았습니다.

신진 예술인이 신청하는 트랙인만큼 창작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의 예술가가 추구하는 예술 활동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었는지, 신청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중점을 두고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작품을 나열하는 발표와 기존 활동의 답습인 프로젝트보다 창작에 대한 다양하고 진중한 고민과 연희 계승의 방향성이 잘 포함되었는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과 참신한 주제 선정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구성 면에서 전통 연희 요소들의 단순한 나열과 재배치 정도에 그친 프로젝트들은 심의를 진행하며 아쉬운 지점으로 사료됩니다. 타 장르, 인접 예술에 대한 경험을 쌓고, 공연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며 연희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를 바랍니다.

전통연희의 현대적 재창작, 장르 간 융합이 시도된 트랙으로, 장르 간 단순한 결합을 넘어 새로운 장르 탄생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기에 앞으로의 예술 활동이 기대됩니다.

○ B트랙

B트랙은 안정적인 예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의 확장이 이루어진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본인(단체)의 예술 활동 방향을 구체화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인 트랙의 특성을 고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반적으로 지원신청 대상 간 큰 편차 없이 안정적 수준의 기획안들이 많았습니다.

B트랙은 연희 중심의 지속적인 예술 활동 여부를 포함하여 다양한 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얼마나 잘 구현되어 있는지,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가 구축하여 확정하고 있는 장르에 대한 집중도에 비중을 두고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연희의 다양한 요소 간 결합 외에도 타 예술 장르와의 교류와 융합을 담아내 건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다만 연희를 직접적인 예술 소재로 정하지 않고 특정 장르를 기반으로 연희의 요소들을 단순 차용하거나 가미한 수준의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답습 및 단순 발표 형태의 일회성 공연이 아닌 작품의 지속성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실현해 나가는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연희에 새로운 주제와 음악 구성, 무대표현, 접근방식을 프로젝트에 담으려는 고민과 노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선정 프로젝트가 단체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레퍼토리로도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 C트랙

C트랙에서는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연희 예술세계를 중심으로 외적 확장과 내적 성장을 담아낸 무게감 있는 사업계획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구축하여 확장한 예술 활동이 '전통연희의 현대적 재창작, 장르 간 융합, 전통연희의 천착'을 통해 공고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된 특징으로 보입니다.

예술 활동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예술계에 예술 활동의 가치를 확장해 나가는 C트랙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청 건이 예술가의 독창적인 예술 활동의 연장선에 더욱 확대될 수 있는지와 해당 예술 활동이 예술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프로젝트가 관객들과 어떻게 공감대를 가지고 긍정적인 가치를 공유하는지도 평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고찰과 구체적 계획을 통한 새로운 장르에 대한 도전은 전통연희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 것으로 보였으며, 향유자와 예술가를 비롯한 예술계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예술 활동의 기간이 길어지며 반복만 하는 작품 활동과 무작위로 타 장르와 결합하는 형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예술 활동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은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수한 예술적 역량을 기반으로 동시대성과 혁신을 담아낸 활발한 예술 활동이 전통 공연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 전통무용(계승)

○ A트랙

A트랙은 자신의 예술 방향을 찾아가는 단계에 적합한 예술인 및 단체의 지원신청 건들이 대체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업계획은 전반적으로 내용이 충실하였으며, 이미 발전 단계로 도약하고 있는 지원자들의 열정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예술가의 전통 계승 의지를 피력한 신청서들이 많았습니다.

A트랙에서는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두었고 사업계획의 짜임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살펴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전통무용 계승의 심의에서 선정에 비중을 두었던 요소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 전통춤이 어떻게 구체성을 가지며 공연이 되는지였습니다. 전통춤에 중심을 둔 프로젝트가 타 분야와의 다양한 융합으로 주객이 전도되거나, 과도한 창작성으로 전통춤의 원형이 변질되지 않았는지를 고려하였습니다.

아쉬운 지점은 전통무용의 맥락으로 볼 때 작품 흐름의 연결이 통일성이 없거나, 작품 프로그램상 춤의 단조로움이 전통성을 약화한 점, 과도한 예산 책정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타 장르와 결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의 방향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관객과 공감을 유도하고 전통무용의 계승과 보존이 병행되어야 유의미한 시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작품 분석 및 해체를 통해 재해석한 프로젝트의 경우,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는 난이도 높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만큼 차별화된 독창적 작품을 위한 오랜 연구와 노력을 기반으로 창작 활동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수한 역량을 통한 유의미한 프로젝트의 경우, 발전적인 면모를 보이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통 춤을 기반으로 기술을 관객과의 소통의 도구로 적절히 활용한 프로젝트는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며 '관객 확장'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B트랙

B트랙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계획이 프로젝트를 상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예술 활동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단계의 지원신청서를 보다 눈여겨보았습니다. 전통 분야에서의 계승을 기초한 전망성을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정확한 근거가 있는 전통춤이 어떤 방법을 통하여 무대 예술로서 계획되어 공연되는지, 전통춤의 공연에서 다양한 방법적 적용은 가능하나 타 분야와 다양하게 융합되며 관객이 전도되거나, 전통춤 계승에서의 과한 창작성으로 전통춤의 원형이 변질되지 않았는지도 고려하였습니다.

많은 지원자가 전통무용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차별화와 독창성을 간과하고 다른 무대 요소나 융복합 시너지 효과에만 의지하려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전통춤 외에 영상이나 무대 설비 비중이 높아졌고, 제작비의 상당량이 이러한 분야에 배분되는 경향도 있었는데, 무용수들의 사례비가 현실적으로 책정되어야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전통예술은 창조적 계승과 원형적 보존을 병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형적 복원과 전승을 통한 올곧은 계승의 책무와 더불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전통 미학과 가치를 지키면서도 시대와 호흡하는 춤으로써 관객이 유연하게 향유하여 일상의 예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측면의 전승과 보존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공공재로써 사회적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춤 본연의 가치와 미학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창조적 계승을 시도해야 하며, 전통예술이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가치는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는 연습이 무대 위에서 필요하겠습니다. 역사성과 시대성을 가지는 틀 위에 사회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공감각적으로 표현하여 객관성도 담보하는 진화와 발전도 요구됩니다. 과거를 떠나보내고 미래를 맞이하는 지금의 춤이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춤은 현장 예술로써 독창성 다양성, 추상성, 즉흥성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종목의 춤이라 해도 추는 자와 연주하는 자가 다르거나 공간의 변화에 따라 또 다른 질감과 느낌으로 형이상학적 미학을 가져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전통무용의 대중 친화적 접근성 확보와 미래지향적 확장성을 만족하는 훌륭한 춤과 작품을 기대합니다.

○ C트랙

예술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안정기를 지나서 완숙기에 이르면 완성도 높은 예술성과 가치 확장성을 추구하는 정착기를 맞게 됩니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C트랙에서는 실험적 도전, 분화와 해체의 작업 시기를 지나 전승과 보존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확연한 춤의 색깔, 작품의 형식에서 예술적, 미학적, 철학적 완성도와 문화 상품적 가치를 발휘하여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리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C트랙은 전체적으로 지원자들의 지원신청서 작성이 안정적이고 구체적이며, 실현가능성을 잘 피력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이 우수해 변별해 가리는 일이 몹시 조심스럽고 곤란하였습니다. 모든 계획서가 우수하였으나 고민 끝에 C트랙은 사회 환원의 성격을 드러낸 경우와 공연의 파급효과를 효율 있게 설계한 지원자를 보다 관심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무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배경 영상에 의존하여 공연 전개 방식을 설명한 경우나, 전통성이 약하고 개인 공연에 치중된 경향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현대적 재해석의 접근은 견고한 텍스트와 심화 연구에 따른 춤 숙련도가 필요한 것에 비해 독창성, 다양성 등의 예술적 완성도를 가질지에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통무용 창작활동에서 원형적 복원과 재현을 위한 방향성은, 정중동의 미학에 입각한 호흡에서 우러나는 한국 춤의 독창적 요소를 반영한 춤 원형 기반을 구축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고증된 음악의 악기 구성, 고증을 통한 의상디자인으로 색상, 소재에서 춤의 미학이 돋보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민족의 문화유산인 전통무용은 사상과 철학을 춤에 담아 미래세대와 공감하고 소통하며 시대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정화하는 동시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무용은 글로벌 콘텐츠로서 역사성과 동시대성을 갖춘 문화자산으로 미래지향적 가치 창달과 문화산업으로 발돋움하여 생산성을 창출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와 가능성에 직면해 있는데, 우수한 예술인(단체)들이 많아 민족문화유산인 전통무용의 미래가 밝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